

# 心

동물들이 心臟은 가졌으되 인간처럼 '心' 즉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말하여 동물들은 튼튼한 하드웨어는 갖고 있으되 인간에게 필적하는 섬세한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心'은 그 형체는 없으나 자기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매우 강하게 만들기도 하며 아주 약하게 위축시키기도 한다. 때로는 몹시 음흉하고 교활하게도 만든다. 또한 타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마음이 고우면 '良心'이지만 그 반대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심보'가 되기도 하고 '心術'이 되기도 하며 '心統(bad disposition)'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心' 또는 '마음'으로 간단히 표현하지만 그 뜻은 知情意를 함께 포함하는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마음을 mindheartspiritsoul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동양에서는 옛부터 '혼'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 심장(heart)에 있다고 했다.

마음의 심지가 곧은 사람을 중심이 잡혀있다고 한다. 즉 '중심'이라는 두글자를 합해서 한글자로 보면 '患'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마음안에 중심이 둘이 있게 되면 이는 환자를 뜻하는 '患'자가 된다. 다시 말하여 치료를 요하는 비정상인이 되는 것이다.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대개 過慾에서부터 시작되고 지나치게 되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나아가서 심화가 끊어



李基鉉

명지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올라 화병이 된다. 마음이 평안을 잃게 되면 심장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자고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항상 화평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늘 患難이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고 했다.

옛말에도 手相不如觀相, 觀相不如骨相, 骨相不如心相이라 했다. 이는 겉으로 생긴 모양보다는 속마음이 고와야 함을 강조한 것이리라. 요즈음에 각계각층에 민주화를 빙자하여 또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답시고 멋대로 방자한 언행을 하면서도 '양심에 따라...' 운운하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良心'의 사이버 인사들이 큰소리치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良心'이 필요한 시대임을 통감하게 된다.